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7호 [루계 제2528호]

주체 108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음력 1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세계정치계의 거성》, 《뛰어난 외교의 거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는

### 국제사회계의 매혹과 찬탄

비범한 정치실력과 대응단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철수 있는 공헌을 하고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행성에 뜨겁게 끓어치고 있다.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인디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새롭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진행된 신년사》 등의 표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은 2013년부터 해마다 신년사를 발표하시었지만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양복차림으로 입장하시는 장면부터 공개하였다. 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방에서 쓰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하시는 모습은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도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웠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의 조언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국내외의 반향이 날로 커가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중국방문은 또다시 온 행성을 격

동으로 뒤흔들게 하였다. 조종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을 안아오신 위인의 대외활동소식은 광범한 언론들을 통해 지구상에 전해졌다.

언론들은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조종래왕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세인의 관심을 모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정세흐름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한 의의있는 방문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에리트선문 《알 바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진행하신 중국 방문을 놓고 그이의 외교활동의 특징이 분석되고 있다.

특징은 최고령도자의 외교활동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라는 전략적목표를 이룩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으며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올해의 중국방문은 그이의 평화애호의지가 얼마나 굳건한가를 보여주는 세계앞에 보여준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외교의 거장이심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한편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와 단체들은 련이어 축하담화화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담화, 성명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올해가 조종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인 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네번재로 이루어진 그이의 중국 방문은 세계외교사에 일찌기 잊어보지 못할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조종친선의 불분성, 불분성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파격의 연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에도 전세계를 《조선충격》, 《조선관》으로 들끓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보적인류는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령도자의 높은 국제적권위는 그이께서 지난해에 단행하신 북남수뇌상봉들과 조미수뇌상봉, 중국방문들을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시보》, 일본의 교도통신, 공공의 문자메세지, 인터넷통신 자료가 《2018년 국제10대뉴스》, 《2018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인류가 《김정은충격》, 《김정은열풍》으로 날과 달을 보낸 지난해의 북남 및 조미수뇌상봉을 벨라리아신문 《프루드》, 《2018년 주요사건들》로 정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 대통령과 약속하시는 영상사진문헌을 《2018년 10대주요사진들》에 모시었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즈 타임스》는 본격적인 외교활동으로 세계정치계를 뒤흔들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2019년에 주목되는 명인》으로 모시었다. 기존의 외교관례와 형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외교활동명령의 범위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면서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절세위인의 혁명활동소식은 언론계의 최고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런의 일사통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으시는 조종의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오늘날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김정은각각께서는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진 령도자》,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

그이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단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이며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높은 국가정치가》, 수뇌상봉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어 특대사변들을 연속 안아오신 김정은각각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

## 조국소식

###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 300여가지의 제품 2월2일제품으로 등록

공화국의 여러 부분 공장, 기업소 등에서 제품생산공정들에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질제고운동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에 60개 단위에서 생산하고있는 300여가지의 제품들이 2월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다.

### 평성김치공장 새로 건설

평성김치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평성시의 봉화동지구에서 건설된 공장에는 김치생산에 필요한 조건

배우, 바드민톤, 태권도, 바줄당기기, 체육유희오락 등의 체육들이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청춘거리 풍구경기관, 태권도전당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4개 조로 나누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평성김치공장 새로 건설

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평성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품인 김치를 생산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새로운 해파리양식기술 확립

수산성 수산연구원에서 인공배양에 의한 새끼해파리생산기술을 확립하여 해파리를 공업적 방법으로 대량양식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생단계와 새끼해파리단계에 따르는 먹이처방을 과학적으로 작성해놓은것을 비롯하여 야와못과 바다서식장에 새끼해파리를 옮겨 키우는 공장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새로운 해파리양식기술 확립을 위하여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 평성 김치공장 건설 현장에서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우간다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캄팔라에서 결성되었다.

###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결성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조지카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 광명성절경축 에티오피아준비위원회가 결성

광명성절경축 에티오피아준비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 엠. 알라프가 선출되었다.

###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결성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 해외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지지

남승우 총련중앙삼일위원회 부의장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당파를 발표하였다.

### 남승우 총련중앙삼일위원회 부의장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당파를 발표하였다.

당파는 련합회의가 호소문대로 력사적인 관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리행하는데 민족의 살길이 있으며 우리 제일동포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은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길》은 구조를 높이고 거족적인 통일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다.

총련은 북과 남, 해외의 련대연합을 강화하고 단행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도전과 방해도 반대배격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총련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

이며 사상과 정견, 단체, 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제일동포들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함께시켜 나갈것이다.

###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길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우리 제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 본땅에 끌려와 치욕스러운 망국의 슬픔만을 당해온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제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것은 한시도 미루수 없는 최

대의 숙원이다. 우리는 반동일세력의 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전체 조선민족의 꿈과 희망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 앞장서나갈것이다.

### 전체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령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재중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당파들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림지우협회 담화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는 벅찬 시기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화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